

주제: 거룩한 교회의 천국입성

은혜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될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수)

(요약) 2015년 12월 1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메뚜기 떼 창궐을 예언한 말라기서 4장 4-6절의 선지자

천국이 들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존귀히 여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물처럼 지켜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교회는 이 은혜가 죄의 면허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합니다. 이런 것을 값싼 은혜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일을 자유 의지에 따라 열심히 행하도록 준비하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디도서 2:14

¹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1

¹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행함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거나 “편안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디도서 3:8

⁸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도서 3:14

¹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크리스찬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며,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히브리서 11:5

⁵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에녹은 휴거를 기다리는 현대 교회의 롤모델입니다.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대로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며 삽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9

⁹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구절에서는 이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든 하늘의 장막을 입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사기 17:6

⁶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면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이 교회를 보면, 그들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왕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영광의 왕 앞에 결산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

¹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²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³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유다의 왕께서 보좌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대교회는 왜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나중에 주님 앞에서 결산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다니엘 7:9-10

⁹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¹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구에는 지금 왕이 계십니다. 불뭇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지구에 왕이 계시다는 말씀과 왕의 명령과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1-5

¹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²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³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⁴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⁵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인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지구와 우주 전체에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29

²⁹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메시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해 지구에 내려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시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38

³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왜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늘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언제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고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합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아버지의 원을 따라 행하심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목사든 평신도든 지구에서의 삶은 주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구자들을 치유하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철저히 자신의 삶을 점검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진리의 순간 (메시아의 오심)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더 속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록 여러분에게 더 유익합니다.

요한계시록 22:7, 20

⁷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²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반복할 때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디도서 2:14는 천국에 들어갈 교회의 특징을
정의합니다.

고린도후서 8:21

21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조심한다’고 표현은 영어로 ‘take pains (go to/take
great pains to do something)’인데, 이것은 선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세상의 공격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찾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보고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구와 화해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노력을 기울여 행하여야 할 선한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로 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백성과 화해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화로운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10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간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선한 행실을 준비하셨습니다.
은혜의 구원 안에서 여러분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 안에서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무위도식해서는 안됩니다.

베드로전서 2:12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 안에 살 때 대적이 반드시
여러분을 박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는 미국, 한국,
나이지리아, 유럽, 남미, 아시아 설교자들의 거짓
은혜의 교리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15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행을 볼 때, 주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저의 사례를 보십시오. 거의 매주 불구자가
일어나 걸습니다. 이것은 기사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지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름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시도하지도 말라. 시도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당할 거짓 참소를
준비시키시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13

13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만일 여러분이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밀접한 동행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9-10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선행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댓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겠지만 견고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26

²⁶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해야 할 선행이 있으며
또한 책임도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21-23

²¹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²²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²³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선행을 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행하여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나중에 설교자들이 다른 은혜를 설교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은혜의 가르침을 붙잡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24-28

²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²⁵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²⁶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²⁷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²⁸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히브리서 10:24

²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선행하는 일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3:16

¹⁶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양육하는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12-14

¹²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¹³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¹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 교회의 청사진을
제시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신성 (“나는
나다”)를 공개적으로 발동하셨습니다. 그 분만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하여 증거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구에 있는 동안, 예수님처럼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 빛의 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5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10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9:1-12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앞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0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방인 가운데 너희 빛을 비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 모범입니다. 공생애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적들과 치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시이며 하나님의 승인의 인치심입니다. 주님의 빛은 공생애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찬양이 아니라 삶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행하는 것이 진정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요한일서 1:5-7

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역시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둠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성적 부도덕, 돈 사랑, 거짓 등) 그들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22:13

13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에게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역회의 빛을 보십시오. 불구자들이 걷고 맹인들이 눈을 뜨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상상 속의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구체화되어 사람들의 눈에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돈 스캔들과 음행, 정치 등에 빠져 있습니다.

시편 18:12

12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뻑뻑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골로새서 1:15-19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6

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이 빛이 교회에 전이된 것을 봅니다.

이사야 9:1-2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며 어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 58:8

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주님께서 백성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시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디다.

이사야 60:1-3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마태복음 5:14-16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이 회개와거룩함사역회에서는 불구자가 걷고 모든 질병이 나음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35-41

³⁵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³⁶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³⁷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³⁸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³⁹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⁴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⁴¹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하며 선행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주님께서서는 복음을 통해 빛을 가져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을 받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춥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행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로마서 11장: judicial blindness)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할 때 조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고 병어리의 허를 푸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신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천국이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빛의 복음을 붙잡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블랙메일하고 욕할 때 예님께서서는 그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심판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덩이로 5천 명을 먹이셨으며 귀신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나병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또 천국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빛을 보면, 반드시 붙잡고 최대한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처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천국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슬기로운 처녀를 보았는데 선행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했던 성도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빛을 주시기 위해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받지 않은 자들은 영적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시스템을 인도하며 영원히 육적인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선지자 엘리야를 약속했으며 그 흔적은 매우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그 흔적을 카카메가 나이지리아 라고스, 페루 리마 등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8-10

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⁹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¹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은 지금 그 빛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1:6

⁶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안에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가져오는 열매입니다.

이사야 42:6-7

⁶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⁷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의무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으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붙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의무입니다.

요한복음 3:19-21

¹⁹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²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²¹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반드시
비추어야 하는 빛이 있어 세상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낮은 시간에 그 빛 안에서 행하십시오. 곧 어둠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른 선거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평화협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8-32

²⁸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²⁹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³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³¹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³²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옹호
하느니라

로마서 1:18-19

¹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¹⁹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두 선지자를 참소하고
블랙메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4-8

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⁵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⁶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⁷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⁸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서는 진리를 부인하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반역을 행하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포기하시고 결국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설교했고 그 후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을 때 결국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신 후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많은 고통과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왕께서 오십니다.